

# 예지력 있고 多産의 동물...흰쥐는 재물 상징

## 庚子年 - 쥐 이야기

쥐의 해는 육십갑자에서 갑자(甲子), 병자(丙子), 무자(戊子), 경자(庚子), 임자(壬子) 등 다섯 번 든다. 쥐(子)는 12지의 첫 번째 동물이다. 자시(子時)는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자월(子月)로는 음력 11월이며, 자방(子方)은 북(北)쪽에 해당한다.

올해는 육십갑자의 37번째에 해당하는 경자년(庚子年) 쥐띠 해다. 천간인 경(庚)은 '희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지지인 자(子)는 쥐띠를 뜻한다. 따라서 2020년은 흰쥐의 해이다. '쥐'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낮말은 쥐가 듣고 밤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도 있고, 이솝우화 '서울쥐와 시골쥐'도 있다. 또 월트 디즈니의 '미키하우스'는 어린아이들을 비롯해 어른들에게까지 친근하게 알려졌으며 쥐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가정도 쉽게 볼 수 있다.

쥐는 12지신(支神)에서 자식이라는 뜻의 자(子)로 표시되어 첫번째 자리에 두었으며, 무한히 늘어나는 왕성한 번식력을 높이 사서 다산(多産)을 상징한다. 속담신화의 소재로 사용된 쥐는 대부분 도둑을 가리키며, 작거나 하찮음에 비유한 것도 많다.

중국 전설에서는 쥐가 500살이 되면 하얗게 변하는데 온 몸의 털이 은통 하얗고 귀와 발만 붉은색이며 눈자위 역시 붉은 색이 된다고 한다. 붉은 것은 금과 옥의 정기인데, 흰 쥐가 나오는 곳을 엿보았다가 그곳을 파면 금과 옥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흰

부지런하고 영리...활동성 강해  
속담·우화에서 친근하게 다가와  
간신·수탈자 비유 등 양면성도

쥐는 재물을 상징하는 좋은 의미의 동물인 것이다. 쥐와 관련된 우리민속도 참으로 많다. 삼국사기 신라 해공왕 5년(769) 11월 기록에는 '치악현에서 쥐 8000마리가 평양 방향으로 이동했다. 눈이 내리지 않았다'(雉岳縣風八千許向平壤無雪)는 대목이 있다. 쥐가 불길한 현상을 암시하는 동물로 묘사된 것이다.

삼국유사 '사금갑' (射琴甲) 이야기에 쥐가 등장한다. 신라 비처왕(소지왕)이 만난 쥐가 사람 말로 '까마귀가 가는 곳으로 따라가소서'라고 하자 까마귀를 쫓았는데, 그때 조우한 노인이 편지를 줬다.

붕투에 '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열지 않다가 일관(日官)이 한 사람은 바로 왕이라고 하자 내용을 확인했더니 사금갑, 즉 가야금 상자를 쏘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에 따라 강릉 중인 승려와 궁주가 나타났다. 내년 경자년(庚子年) 띠동물인 쥐는 이처럼 전통적으로 예지력을 지닌 동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쥐를 긍정적인 동물로만 생각하지는 않았다. 곡식을 훔쳐 먹고 나무를 쏘는 습성으로 인해 간신과 수탈자를 상징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했다. 심지어 탐관오리와 쥐를 동일시하는 문학 작품도 있었다.



유교적 왕도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사회에서 쥐는 부정한 동물이었다. 특히 정약용은 쥐를 간신과 수탈자에 비유했다. '아함경' (阿含經)에서는 사람의 일생에서 흰쥐를 낮, 검은쥐를 밤으로 비유해 시간을 상징하고 있다. 빙허각 이씨가 1809년에 쓴 '규합총서'에는 쥐를 없애는 법에 대한 항목이 있다. 검은 개 피를 게에 부어 사흘을 사르면 쥐가 모이고, 정월 첫 진일(辰

日)에 쥐구멍을 막으면 다시는 뚫지 않는다는 등 주술적 내용이 많다. 이밖에 '물에 빠진 생쥐 같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아 있다', '쥐뿔도 모른다' 등 부정적인 면을 담은 속담도 있지만 '쥐가 소금을 나른다'는 것처럼 부지런하고 영리하고 강한 활동성을 가진 모습에서는 배울 점이 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림=백준선  
·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 동양화전공 졸업  
·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개인전 14회  
· 제1회 광주, 홍콩, 소아프, 휴스턴아트페어 등 그룹전 및 기획전 400여회  
· 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 등 심사 운영 30여회

## 知天命的 庚子年 운세



2020, 경자년이 시래운도 하니 하늘의 정기를 받아 눈이 부시도록 하얀 쥐가 천하만물의 흐름을 갈상선사로 이끌어 경행이 만발케 되리라. 오행 이치상 쥐는 다산과 풍요 그리고 근면과 지혜를 상징하는 바, 재물과 부를 이루는 변명으로 말미암아 그 복력이 여천지무궁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윙윙탁탁의 혁신 성장 코드로써 격물치지의 궁극적 이념을 진사케 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신성장 동력과 공정의 가치를 대전제로 한 개세의 국운이 흥왕하여 격절탄상 활만한 금자탑을 세우리라. 국제적으로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복잡다층 구조를 띤 세계만방 상호간의 첨예한 이권 다툼 속에서 국제 정치 동향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면서 각자도생 하는 형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子** 36, 60년생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루니 천지간에 살아가는 선남 선녀들의 복덕이 넘치리라. 48, 84년생 같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라 하더라도 여떠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와 용도가 다를지니, 매일 매시의 일상에 새롭게 임한다면, 번득이는 지혜가 운로를 개척 하리라. 72, 96년생 자신을 찾아드는 사람이 많으니 활기가 넘치는구나! 자신의 마음처럼 상대를 배려한다면 길은 저절로 열리리라.

**丑** 37, 49, 97년생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한 노력한다면, 기묘한 계기가 성공의 등대가 되어 줄 것이니 진합태산이요, 대기만성의 이치로다. 61년생 큰 것만을 찾지 말 것이며, 일상생활 속의 소박한 결실이 실속 있음을 알고 추진한다면, 백전백승이로다. 73, 85년생 주고받는 것 속에 길조가 비치니 적극적인 거래, 교역, 경영, 계약 등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세운이다.

**寅** 38, 98년생 기교가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운명이니, 매사에 깔꼼한 마무리와 치장을 더한다면 몇 갑절의 효과나 이익을 담보할 수 있으리라. 50, 86년생 임하는 일마다 대부분 순행하게 될 것이니, 기쁨의 파인대소가 온 얼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62, 74년생 지난 날에 뿌려 놓았던 공덕으로 인해서 자신을 도와 줄 귀인을 맞이하게 되는 판세이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卯** 39년생 일 년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가꾼다면, 탄실한 수확을 보장하게 된다. 51, 87, 99년생 선영의 공덕으로 인해서 흉사가 길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니, 문중 행사나 선조를 받들고 있어서 소홀함이 없어야 제대로 된 음덕을 입을 수 있으리라. 63, 75년생 높은 산에 올라 사냥감을 향해서 활시위를 당기니 백발백중이로다. 풍성한 노획물을 들쳐 메고 내려오는 발걸음이 흥겹기만 하리라.

**辰** 40, 52, 76년생 검푸른 물 속 깊은 곳에 잠룡이 승전을 꾀하고 있는 태양으로써, 그 동안 목적하여 왔던 바를 본격적으로 시도해 볼만하다. 88년생 한 차례 내린 단비는 촉촉이 젖어들어 백화쟁반을 기억할 것인 즉, 일거다득의 기회들이 속출 하리라. 64, 00년생 큰 물에 낚시를 드리우니 처음에는 기척도 없다가 끝날 무렵에 활적을 낚는구나! 행하면 반드시 얻는 바가 클 것이니 진중하게 기다리라.

**巳** 41, 77년생 먹구름이 사라지고 밝은 햇살이 고개를 내미니 활동하기가 적절한 시기를 만났도다. 53, 89년생 자기만의 장점이 빛을 볼 수 있는 해이니 만큼, 독창성과 창의성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함이 바람직하다. 65, 01년생 창해의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거함에 비유할 만하니, 그 모습이 장관이로다. 주변의 반응이나 잡다한 환경변화를 의식하지 않고 의연히 나아가면 그 성과는 더욱 값지리라.

**午** 42년생 현재의 이해관계를 떠나 인간의 도리에 충실 한다면 모든 이가 아군이 되어 복록의 근원을 제공 하리라. 54, 66, 90년생 천지간에 생양의 기운이 가득하여 도처에 초목과 곡식이 자라고 재물과 길사가 술하게 펼쳐져 있으니 이 얼마나 즐겁겠는가? 78, 02년생 강인한 정신력과 생활력이 판국을 역전 시킬 수 있는 도망이니 만큼 현재의 상황을 이겨 낸다면 멀리서부터 찬란한 서광이 비추 오리라.

**未** 31, 91년생 공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여 적선을 생활화 하고 숨은 덕행을 쌓아 나간다면, 어느새 성취의 장에 이르러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으리라. 43, 79년생 지난날의 소강상태가 새로운 국세로 전환 되니 비어 있던 창고가 가득 차게 되고, 보류되었던 일들이 재개 되리라. 55, 67년생 명예가 드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재물을 불러들이니 겹경사의 행운을 안게 되리라.

**申** 32, 44년생 순간의 빛나는 기지가 형세를 바꾸어 놓을 수 있으니 구우일모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자. 56, 68년생 처음에는 다소 힘이 들지만 정 자리를 잡으면서 탄탄대로로 달리게 될 것인 바 선홍후길의 모양새가 역력 하느니라. 80, 92년생 평생에 걸쳐 있어 왔던 발을 눈으로 바꾸게 되고, 꾸어왔던 물건이나 재화가 이문과 함께 들어 올 수이니, 발전하는 기세가 세차도다.

**酉** 33, 57, 93년생 진부한 일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계속된다면, 뜻밖의 기회나 정보들을 접할 수 있는 천운이로다. 45년생 구태의연함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새로움을 도모한다면, 대ભ이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국세로써 대성할 것이다. 69, 81년생 가려진 새싹이 불비를 만남에 비유할 수 있으니, 그 싹튼 길조의 여파로 줄기차게 추진한다면 대업을 이루리라.

**戌** 34, 70년생 인정 끝에 손재수가 비칠 수 있으니, 한 번 내린 결단은 단호하게 지켜나가는 자기 규율이 절실한 해이다. 46, 82년생 현재의 안일에서 취해 있지 말고 항상 주변을 면밀히 살펴보고 점검하라. 그리하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행운과 연결 될 수도 있느니라. 58, 94년생 만경창파에 떠 있는 나룻배가 아름답기 그지없도다. 다만 해저에 숨은 암초까지 살펴보고 노를 저어아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亥** 35년생 구중심체에 피어난 진귀한 화초의 기운으로 볼 수 있으니,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계획이나 심정을 토로한다면 상당한 조언이나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리라. 47, 59, 71년생 물고기 가 좋은 물을 얻으니 생기가 돌고 활기가 개척되는 수로의 길목이다. 마음껏 포부를 펼쳐라. 83, 95년생 목전의 이익만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국면과 관계를 염두에 둔다면, 재앙도 복덕으로 변할 것이다.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모던 스타일

**Classic**

클래식 스타일

**Mediterranean Sea**

지중해 스타일